

## 아동학대행위부모에 대한 행동적 부모훈련의 효과: 1년 후 재학대율, 양육스트레스, 양육태도, 피해아동의 공격적 행동문제를 중심으로\*

조 고 은

동주대학교 학생상담센터/상담원

김 윤 희<sup>†</sup>

신라대학교 교육학과/부교수

본 연구의 목적은 아동학대행위부모 대상 행동적 부모훈련 프로그램이 학대행위부모의 양육스트레스, 양육태도와 학대피해아동의 공격적 문제행동 및 재학대율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는데 있다. 연구대상은 아동학대로 신고되어 판정받아 OO광역시 가족기능강화사업에 의뢰된 19가정의 학대행위부모이다. 처치도구로는 김윤희, 박영순, 소명희, 정신혜와 조고은(2018)이 개발한 행동적 부모훈련을 사용하였다. 부모훈련 실시 전과 종료 후, 양육스트레스, 양육태도, 아동의 공격적 행동문제를 측정하였고 종료 1년 후 재학대율을 추적 조사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부모훈련 종결이후 양육스트레스가 높은 효과크기로 감소하였다. 긍정적인 양육태도는 높은 효과크기, 부정적인 양육태도는 매우 높은 효과크기로 감소하였다. 둘째, 부모훈련을 실시한 후, 아동의 공격적 행동문제의 발생빈도와 심각도가 매우 높은 효과크기로 감소하였다. 셋째, 부모훈련 종료 1년 후 재학대율을 추적한 결과 5.2%로 나타나 당해년도 전국 재학대율 10.3%의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동학대 행위자에게 행동적 양육기술을 훈련시킴으로써 부모의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태도, 아동의 공격적인 행동문제를 개선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재학대 발생을 감소시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

주요어 : 아동학대행위자, 행동적 부모훈련 프로그램, 양육스트레스, 양육태도, 공격적 행동문제, 재학대율

\* 본 연구는 조고은(2019)의 신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행동적 부모훈련의 효과’를 요약, 수정한 것임.

† 교신저자 : 김윤희, 신라대학교 교육학과, 부산광역시 백양대로 700번길 140

Tel : 051-999-5305, E-mail : esperakim@gmail.com.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018 아동학대 주 요통계’에 따르면 연도별 아동학대사례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9). 일례로 2018년 아동학대사례 건수는 24,604건으로 2014년 10,027건보다 약 2.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대사건의 행위자 대부분은 피해아동의 부모이다. 2018년에 아동학대로 판단된 24,604건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부모에 의해 발생한 경우가 76.9%로 나타났다. 이는 아동학대 사례 10건 중 약 7건 이상이 부모에 의해 발생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부모에 의해 발생한 사례 중 친부에 의해 발생한 사례가 43.7%, 친모는 29.8%, 계부와 계모는 각각 2.0%, 1.2%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동학대 발생장소 또한 가정 내에서 발생한 경우가 80.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위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학대행위는 대부분 부모에 의해 발생되고 있다. 행위자와 피해자가 함께 거주하고 있을 때 학대가 발생하면, 피해자가 학대에 노출되는 시간이 길고, 다양하고 복합적인 형태로 학대를 받을 가능성은 더욱 높아진다. 더욱이 가정은 외부에서 접근하기 어려운 사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학대피해사실을 조기에 발견하기가 매우 어렵다. 신고 되지 않아 통계에 잡히지 않는 사례까지 감안하면 실제 가정 내에서 이루어는 학대의 발생비율은 더 높아질 것으로 추정된다. 학대는 아동의 안전 및 발달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학대를 일으키는 가정 내 위험요인을 밝히고 이에 효과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다양한 심리사회적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일은 매우 시급한 과제이다.

학대행위자 부모가 자녀를 학대하는 이유는 다양하다. 먼저, 부모가 우울증이나 알코올중

독과 같은 정신건강문제를 가진 경우 학대가 발생한다는 보고가 많이 있다. 학대행위자에게서 높은 빈도로 관찰되는 정신건강문제 중 하나는 우울증이다(안동현, 박현선, 김완진, 한지숙, 2003a). 우울한 부모는 자녀에 대한 부정적 양육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우울한 부모는 자녀의 행동이나 의도를 부정적으로 지각하는 경향이 있고 그 결과 부정적인 양육행동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이 도를 넘어서서 학대로 이어질 수 있다(이정윤, 장미경, 2009). 부모가 알코올중독을 가진 경우에도 이에 수반하여 폭력을 행사하거나 음주상태에서 자녀를 방임할 가능성이 증가한다(Rowland, Zabin, & Emerson, 2000).

둘째, 부모의 정신건강문제와 같은 개인적 특성 이외에도 실직이나 빈곤과 같은 사회경제적 상황 또한 학대를 촉발, 유지,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사회경제적 스트레스는 가정불화와 부부싸움을 촉발하며 이 과정에서 아동학대도 더불어 증가하기 때문에, 가정 내 경제 위기를 자주 경험하는 아동일수록 학대를 경험할 가능성이 크다(오승환, 2001; 장화정, 강미경, 신소현, 2000). 심각한 경제적 위기에 시달리는 부모는 이에 동반되는 좌절감과 불안감으로 인해 부부간에 서로를 비난하면서 불화를 겪거나 폭력을 서로에게 행사하고, 자녀의 정상적인 행동에 대해서 과민하게 반응하여 신체적, 정서적 학대를 행하거나, 경제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많은 시간을 밖에서 일하면서 자녀를 방임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셋째, 학대와 관련된 요인으로 가족적 요인도 간과할 수 없다. 가족적 요인으로 학대행위자에 대한 것과 피해아동에 대한 것으로 나누어 볼 때, 먼저 학대행위자의 과거력이 학

대와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학대행위자의 60% 이상이 어린 시절 학대를 경험했다는 연구가 있다(김유경, 2008). 자신의 부모로부터 무시나 거부를 당하는 등 정서적으로 박탈된 가정에서 성장한 부모는 그 과정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양육태도와 방법을 학습하게 되는 반면, 적절한 부모상이나 부모역할수행을 학습할 기회를 갖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홍진희, 2003). 이러한 부모는 어린 시절에 경험한 폭력적, 거부적인 양육방식에 대한 도식대로 자신의 자녀를 학대할 수 있다. 과거에 학대를 당했던 부모는 어린 시절부터 축적된 심리적 압박감을 발산하기 위한 하나의 돌파구로서 현재의 자녀를 학대할 가능성도 있다(주지현, 2002).

한편 학대피해아동이 가진 까다로운 기질이나 행동문제가 학대를 촉발하는 취약성으로 작용한다는 연구도 있다. 이주희와 이양희(2000)는 불순응하고 공격적인 문제행동을 많이 보이거나 외부 자극에 대한 높은 민감성과 같이 다루기 힘든 기질을 가진 아동, 우울하거나 공격적인 성향을 가진 아동들에게서 학대가 더 많이 발생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아동 개인의 부정적인 특성 또한 양육자의 학대행위를 유발시킬 수 있다. 요약하면 아동학대의 발생과정에서 다양한 부모, 아동, 사회경제적 위험 요인이 관여되며, 이러한 위험요인들은 복잡하게 상호 관련되어 작용하고 있다.

학대가 촉발, 유지, 악화될 경우 피해아동의 발달, 그 중에서도 심리적 발달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다양하다. 김광혁(2009)에 따르면, 아동학대 및 방임은 아동의 자아존중감, 우울 및 불안, 공격성, 비행 등 전반적인 내재화 또는 외현화 행동문제를 일으키며 이는 학교생활이나 학업성취, 범죄에 이르기까지 광범위

한 영역에서 문제로 나타날 수 있다. 김은희와 이인혜(2016)는 아동 청소년기 학대 및 방임의 경험은 경계선 성격특성의 발달 및 대상적 자기 손상을 초래한다고 하였다. 국내에서 학대 후유증을 집중적으로 살펴본 연구에서도 학대 피해아동은 사회성 저하, 자아존중감 저하, 위축, 우울, 사회적 미성숙, 사고문제, 주의집중, 비행, 공격성, 외현화 등의 문제를 보인다고 보고하였다(안동현 등, 2003b).

이 중에서 학대 피해아동들이 가장 많이 보이는 문제 중 하나는 공격성 혹은 파괴적 문제행동이다. 우리나라 학대피해아동을 조사한 결과에서 공격성과 반항, 충동성 등의 행동적 문제가 34.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7) 많은 연구에서 학대경험과 아동의 공격성과의 관련성이 보고되고 있다(김광혁, 2009; 김수정, 정익중, 2013; 김평화, 윤혜미, 2013; 박애리, 2014; 변은실, 이주영, 2016; 신혜영, 최해림, 2003; 이승주, 남재성, 2016; 이충권, 양혜린, 2017; 장희순, 2015). 아동기의 공격성은 청소년기를 거치면서 많은 경우 비행으로 발전되어 성인기 정신건강문제로 이어지는 등 만성적인 문제로 발전할 수 있다(임진섭, 2009). 종합해볼 때 학대를 경험한 대부분의 아동은 공격성과 반항, 충동성 등 외현화 문제를 중심으로 다양한 심리적 문제를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학대피해아동의 공격성은 부모의 부정적 양육방식을 더욱 자극하고 악화시킴으로써 재학대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Wicks-Nelson & Israel, 2015). 일반적으로 공격적 행동을 보이는 아동의 부모는 그렇지 않은 아동의 부모보다 더 높은 양육스트레스를 느끼는데, 부모의 높은 양육스트레스는 다시 부

정적 양육행동을 증가시킴으로써 다시 아동이 더욱 공격적이고 반항적으로 행동할 가능성을 높인다(Patterson, Reid, & Dishion, 1992). 자녀의 까다로운 기질과 행동문제를 자주 경험하는 부모는 자녀에 대해 분노와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강하게 느끼게 되어 자녀의 욕구를 무시하고 명령이나 비난으로 자녀를 통제하려 할 수 있다(김미숙, 2005; 박용임, 1995; 신숙재, 1997; Crinic & Acevedo, 1995; Suchman & Luther, 2001). 자녀에게 화가 난 부모는 거부적, 통제적인 양육태도(윤희근, 2012), 민주적 양육행동보다는 강압적 양육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다(김영숙, 조은영, 1996). 이러한 부정적 양육행동은 다시 아동의 반항심과 공격성을 자극한다. 이러한 악순환의 반복은 부모자녀 간의 갈등을 높이고 부모자녀관계를 저해한다(남혜순, 2003; Tan & Rey, 2005). 이렇듯 학대 피해아동의 공격성과 학대행위부모의 부정적 양육행동이 서로를 강화하면서 부정적인 방향으로 상승작용을 하다가 결국에는 학대로 이어질 수 있다(Patterson, 2016). 이 과정에서 부모의 양육기술 부족은 학대의 촉발, 유지, 악화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변수라고 할 수 있다.

국내 실태조사에서도 양육기술 부족이 아동 학대와 관련하여 중요한 변수라는 점이 거듭 확인되었다. 2016년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를 살펴보면, 가장 두드러지게 드러난 학대행위자의 특성은 ‘양육태도 및 방법의 부족’으로 16,737건을 기록했다.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가 18,700건임을 감안했을 때 약 90%의 학대 행위자들이 양육태도 및 방법과 관련된 문제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재학대 사례는 특히 심각한 상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이들 재학대행위자들의 특성 중에서

‘양육태도 및 방법 부족’이 1,874건(36.2%)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 3명 중 1명 이상은 아동에 대한 양육태도 및 방법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볼 수 있다(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7). 이주희와 이양희 연구(2000)에서도 자녀에게 적대적이고 통제적인 태도로 반응하는 부모와 폭력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미숙한 부모들이 위기 상황에서 자녀를 학대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 이에 많은 연구자들은 학대가 다시 재학대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 무엇보다 부모에게 효과적인 양육기술을 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Barth, 2009).

학대개입의 역사가 오래된 서구권에서는 부모의 양육방식 개선을 아동학대 예방의 가장 중요한 목표라 보고, 부모에게 양육기술에 초점 맞춘 부모훈련을 실시하고 그 효과성을 검증하는 연구를 거듭해 왔다(Barth, 2009).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근거기반부모훈련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한 논문 23개를 분석한 메타연구에서(Lundahi, Nimer, & Parsons, 2006), 부모훈련은 아동학대 감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여러 부모훈련 중에서도 특히 효과적이었던 접근은 각 가정의 개별적 환경에 맞추어 실시된 경우와 행동적 부모훈련으로 나타났다. 행동주의 방식으로 접근할 때 부모의 양육행동에 대한 효과크기는 .61이었으나 행동주의 이외의 방식으로 이루어진 부모훈련의 효과크기가 .32로 절반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77편의 부모훈련논문을 분석한 메타분석논문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Kaminski, Valle, Filene, & Boyle, 2008). 행동적 부모훈련은 상담소 세팅에서 시행되든 가정 방문으로 시행되든, 개인훈련 조건

이나 집단훈련 조건이든 모두 중간 효과크기에서 높은 효과크기로 재학대 위험을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arlow, Johnston, Kendrick, Polnay, & Stewart-Brown, 2006; Santini & Williams, 2016; Chen & Chan, 2015). Kaminski 등(2008)은 부모훈련을 구성하는 기저 치료요소별로 효과를 분석하였는데, 다른 요소보다 행동적 기술의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고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특히 효과적이었던 행동적 기술로는, 부모자녀간 긍정적인 상호작용기술, 정서적 의사소통기술, 타임아웃기술, 마지막으로 행동적 기술의 반복 연습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오늘날 많은 근거기반 아동학대행위자 부모훈련 프로그램 중에서도 행동주의에 기반한 부모훈련은 일반적으로 높은 효과를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Vlahovicova, Melendez-Torres, Leijten, Knerr, Gardner, 2017; Kolko & Swenson, 2002).

행동적 부모훈련이 아동학대를 억제하는 효과를 보이는 기제는 아동학대가 Patterson 등(1992)의 강압기제라는 행동적 원리에서 찾아볼 수 있다(Vlahovicova et al., 2017). 강압과정은 부모와 자녀 간에 폭력을 정적/부적으로 강화시키는 부모자녀간의 행동적 상호작용 패턴이다(Brinkmeyer & Eyberg, 2003). Patterson(2016)의 강압과정 3단계(3-step sequence)는 학대행위부모와 피해아동간의 관계가 악화되는 과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시점 1의 사람 1(예, 학대가해자)의 혐오적 행동(예, 학대)은 시점 2의 사람 2(예, 학대피해아동)의 혐오적 행동(예, 반항, 언쟁)을 일으킨다. 시점 2의 사람 2의 혐오적 행동(예, 반항, 언쟁)은 시점 3에 사람 1의 혐오적 행동(예, 학대)을 단념하게 만든다. 이러한 과정이 반복되면, 부모의 학대와 아동의 공격성은 서로가 서로

를 강화시키면서 더욱 증폭되고 빈번해 질 수 있다.

이를 좀 더 풀어서 이야기하면 다음과 같다. 학대행위부모는 훈육이 충분히 엄격하지 않으면 자녀가 변화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념 위에 자녀에게 체벌을 동반한 강압적인 훈육 혹은 학대를 행사한다. 이러한 훈육에 대해서 자녀가 부모의 기대대로 반응하게 되면, 학대행위부모의 신념과 행동은 부적강화되어 부모가 자녀에게 점점 더 강압적인 방향으로 행동할 가능성이 높아진다(Crouch & Behl, 2001). 한편, 자녀는 부모의 기대대로 반응할 때도 있지만 그보다 강압적인 부모에게 더 공격적인 방식으로 행동하는(예, 때쓰기, 폭력) 경향이 나타나는데, 이는 부정적 행동의 상호성에 기인한 결과이다(Patterson, 2016). 이러한 자녀의 공격성은 학대부모에게 처벌로 작용하여 학대부모 입장에서는 학대행위를 철회하게 되고 이는 자녀의 공격성을 결과적으로 강화하게 된다(Patterson, 2016). 자녀는 이후 강압적인 부모에게 자신의 의사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점점 더 강압적인 문제행동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강압과정은 자동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부모와 자녀는 부지불식간에 서로의 공격성을 계속 강화하는 경향이 있다(Patterson, 2016). 행동적 부모훈련은 행동수정이론에 근거하여 부모에게 아동의 공격성을 효과적으로 다루는 구체적 행동기술을 훈련시킴으로써 이러한 폭력의 악순환을 끊는다(Barkley, 1997). 구체적으로 행동적 부모훈련은 부모의 민감성을 증진시키고, 부모의 양육태도를 수정하며, 자녀의 행동을 해석하는 귀인오류를 바로 잡고, 행동관리에 기반한 양육기술을 가르친다(Vlahovicova et al., 2017). 이러한 구체적인 행동관리법은 강압기제의 자동적 과정을 효과적

으로 바로 잡을 수 있다(Patterson, 2016). 구체적인 행동관리법을 배운 부모는 구체적인 문제 상황에서 아동에게 보다 긍정적으로 말하고 행동함으로써 아동의 문제행동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킨다(Webster-Stratton, 2011). 한편, 자녀는 공격적인 방식이 아니어도 부모의 관심과 돌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안전감을 경험할 수 있다(Webster-Stratton, 2011). 행동적 부모훈련을 통해 부모자녀관계가 회복되고 부모들의 양육 스트레스는 감소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Feldman & Werner, 2002).

아동학대 연구에서 과학적 근거가 확인된 행동적 부모훈련 프로그램으로는 멋진 시절(Incredible Years; Hurlburt, Nguyen, Reid, Webster-Stratton, Zhang, 2013), 긍정적인 부모 프로그램(Positive Parenting Program; Prinz, Sanders, Shapiro, Whitaker, & Lutzker, 2009), 부모아동상호작용치료(Parent-Child Interaction Therapy, 이하 PCIT; Timmer, Urquiza, Zebell, & McGrath, 2005), 안전한 돌봄(Safe Care<sup>®</sup>; Chaffin, Hecht, Bard, Silovsky, & Beasley, 2012) 등이 있다. 이 중 PCIT는 조작적 조건형성 이론과 함께 전통적 아동심리치료 기술을 이론적 배경으로 삼고 있다(McNeil & Hembree-Kigin, 2013). 그밖에 다중체계치료(Multisystemic Therapy for Child Abuse and Neglect)는 행동적 부모훈련과 함께 학교, 지역사회 등 다양한 체계에도 개입하여 재학대를 예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Swenson, Schaeffer, Henggeler, Faldowski, & Mayhew, 2010). 행동적 부모훈련은 행동과 결과의 수반관계(contingency)를 재구성하는 훈육기술(예, 부모자녀간 긍정적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기술, 지시하기 기술, 강화와 처벌의 사용, 타임아웃기술)을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다(Weisz, 2004). 또한 부모의 기술훈련을 위한 상세한 매뉴얼

의 제공, 과제 부여, 부모의 양육행동 변화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 광범위한 역할연습과 같은 과정적 속성과 함께, 3개월 이상 지속되는 치료길이를 가지고 있다(Barth, 2009). 아동학대 연구에서 성공적인 성과를 거둔 행동적 부모훈련 프로그램은 구체적인 양육행동기술을 다루고, 역할 연습으로 내용을 충분히 습득할 수 있도록 하며, 일상생활로 일반화되도록 부모에게 과제를 부여하면서 지속적으로 부모의 양육습관 변화를 모니터링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Barth, 2009; Kaminski et al., 2008).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을 대상으로 한 행동적 부모훈련 프로그램의 효과를 살펴보면(Hurlburt et al., 2013), 먼저 학대행위부모들의 양육행동이 긍정적으로 개선되었고, 양육 스트레스가 감소하였다(Letarte, Normandeau, & Allard, 2010; Timmer et al., 2005). 둘째, 피해아동은 부모의 지시에 좀 더 순응하게 되었고 반항과 같은 외현화 문제가 감소했다(Timmer et al., 2005). 셋째, 부모-자녀 간 상호작용 측면에서 부정적인 상호작용이 줄어들었고 재학대율이 감소하게 되었다(Timmer et al., 2005; Chaffin et al., 2004). 요약하면 행동적 부모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부모와 아동의 변화와 더불어 부모자녀 간 상호작용이 긍정적으로 개선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국외에서 학대행위부모에 대해 근거기반 부모훈련이 광범위하게 사용되는데 반해 우리나라의 사정은 다소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국내 학대행위부모에 대한 개입은 내용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포괄적인 주제를 다루는 것이 특징이다. 개입의 형태는 대부분 개인상담 형식을 띠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학대 신고 건에 대해 이루어진 서비스

중 상담서비스가 78.1%로 가장 높은 수치로 집계되었는데, 그 중 개인상담 서비스가 65.6%를 기록했다(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7). 학대행위부모에게 실시되는 개인상담에서 주로 다루어지는 주제를 살펴보면 양육기술뿐만 아니라 부모의 스트레스관리나 분노조절, 부모의 과거학대경험, 애착문제와 같이 부모개인의 문제가 폭넓게 다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굿네이버스, 2017). 이와 같이 우리나라에서 학대행위부모에게 제공되는 상담의 주제가 다양한데 반해 행위자부모들은 무엇보다도 자녀양육에 대한 상담이나 코칭을 집중적으로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굿네이버스, 2017).

국내 학대에 개입하는 전문기관인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서 개발한 치료프로그램의 경우에도 주제의 포괄성은 마찬가지로 발견된다. 광주아동학대예방센터(2001)는 ‘학대부모를 위한 프로그램’에서 학대행동에 대한 자기인식 확장, 학대행위자의 아동기탐색, 스트레스 관리, 분노조절, 부모역할에 대한 내용을 다루었다. 2003년 보건복지부의 ‘아동학대 행위자 치료 프로그램(안동현 등, 2003a)’은 아동 발달과 부모 역할 이해, 학대행위자로서의 ‘나’에 대한 이해, 아동 학대에 대한 이해, 학대행위자로서의 책임감 인식, 대안적 기술 습득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2009년에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아동학대행위자특성별 치료프로그램 개발 연구에서 학대 가해자의 특성에 따라 프로그램을 3가지로 나누어 개발했다. ‘알콜·약물남용 행위자 치료 프로그램’, ‘아동성학대행위자 치료프로그램’, ‘부모의 건강한 양육태도를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이에 해당된다(보건복지가족부, 2009). 그 중 ‘부모의 건강한 양육태도를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은 총 10

회기로 학대부모 자신의 상처와 치유, 아동학대 인정교육, 학대부모의 자녀양육기술 변화, 학대 가족의 회복과 변화의 내용을 다룬다. 한편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프로그램 이외에도 박현선, 배진희, 안동현과 한지숙(2004)이 개발한 아동학대 가해부모를 위한 치료프로그램이 있다. 연구에 사용된 시범 프로그램은 총 7회기로서 아동발달에 대한 이해, 학대행위자 자신에 대한 이해, 아동학대에 대한 이해와 책임감 증진, 의사소통 기술, 효과적 훈육기술, 분노에 대한 이해 및 조절 필요성 인식, 분노조절의 구체적 방법습득의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김윤정(2010)은 집단사회복지실천 이론, 사회학습이론, 인지행동이론에 기반을 두고 총 8회기의 아동학대 행위자 집단 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아동특성에 대한 이해, 부모의 자신에 대한 이해, 자녀와의 관계 탐색, 분노조절, 효과적인 의사소통, 긍정적인 훈육 등의 내용을 다룬다. ‘재학대 방지를 위한 가족기능강화사업’의 일부로 개발되어 진행된 이야기치료 프로그램(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4)은 총 8회기로 학대가정의 구성원들이 이야기를 표현하고 재구성하는 과정을 통해 자아정체성, 왜곡된 신념 등을 다룬다. 충청북도 아동보호전문기관(2015)에서 개발된 ‘내 삶의 멋진 드라이빙’은 총 10회기로 구성된 부모용 집단상담 치료프로그램이다. 역동적이고 체험적 접근을 사용하여 콜라주, 사이코드라마, 영화치료 등의 활동을 통해 가족역동을 다룬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대부분의 학대예방 프로그램은 학대행위부모의 어린 시절 탐색, 아동발달, 양육태도, 가족역동, 자아정체성, 양육에 대한 왜곡된 신념과 같이 다양한 주제를

광범위하게 다루고 있으나 선행연구에서 가장 효과적이라고 지목된 행동적 양육기술은 상대적으로 적게 다루고 있다. 국내에 학대행위부모 대상 개인상담이나 학대예방 프로그램의 효과를 체계적으로 검증한 경험적 연구가 매우 드물기 때문에 포괄적인 주제를 단편적으로 다루는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논하기가 쉽지 않다(박현정, 김현경, 2017). 다만 이와 같은 접근을 비교적 엄격한 집단간 비교설계로 검증한 국외의 연구에 비추어 볼 때 그 효과가 제한적일 가능성이 추론된다(Chaffin et al., 2004). Chaffin 등(2004)은 무선할당 집단간 비교연구설계로 세 가지 조건, 즉 1) 행동적 부모훈련인 부모아동상호작용치료(PCIT)만 실행하는 조건 2) PCIT에 더해 가족문제 등을 다루는 추가 개인상담 조건 3) 통상적 지역사회치료에 110명의 학대행위부모를 무선할당하여 그 효과를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PCIT만을 시행한 조건에 비해서 가족문제, 부모의 우울증 등을 다루는 추가 개인상담조건에서 오히려 치료효과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자들은 이상의 결과에 대해서 다양한 주제를 동시에 다루는 개입이 비생산적이라고 비판하면서 이러한 개입이 학대행위부모에게 부모자녀문제의 원인을 자신의 양육행동이 아닌 다른 곳으로 돌리도록 하는 역효과를 갖는다고 설명하였다. Chaffin 등(2004)의 연구결과를 국내에 확장해서 볼 때, 국내에서 학대가정에 대해 다양한 주제를 단편적으로 짧은 시간에 다루는 개입의 실효성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학대관련 선행연구에서 긍정적인 성과가 보고된 행동적 양육기술에 초점 맞춘 행동적 부모훈련이 학대가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데 두었다. 이와 같이

임상적 동질성을 지닌 처치의 효과를 살펴볼 때, 치료효과의 개념적 기초를 경험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개념적 기초가 확실한 프로그램은 결과가 일반화되는 과정에서 그 핵심 치료요인이 행정적인 편의성에 의해서 왜곡되는 오류를 덜 겪을 가능성이 높다. 본 연구는 아동학대가 이미 발생한 가정에서 재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3차 예방(이재연, 윤선화, 2004)으로서 행동적 부모훈련을 실시함으로써 학대예방과 관련된 여러 결과측정치에서 효과를 확인하고자 한다. 부모관련 변수로서 부모의 양육스트레스, 양육태도의 변화, 아동관련 변수로서 아동의 공격적 행동문제의 변화를 부모의 자기보고측정치로 평가하고자 하였다. 아동학대 관련 선행연구들에서 양육태도나 아동의 문제행동에 대한 부모의 자기보고를 신뢰롭고 타당한 측정치로 간주하여 널리 사용하고 있다(Vlahovicova et al., 2017). 학대를 숨겨야 하는 조사단계를 지나 다양한 아동보호서비스를 수혜 하는 단계에 있는 학대행위부모들은 심리사회적서비스를 오히려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경향도 보이는데(굿네이버스, 2017) 이로 인해 자기보고편향이 상대적으로 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한편, 대부분의 학대행위 부모들이 자신의 양육태도가 별로 문제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며, 아동의 문제행동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강압적 훈육을 시행했다고 보기 때문에 이상을 측정하는 척도에서 덜 방어적인 것인지도 모른다(Kolko & Swenson, 2002).

특히 본 연구는 프로그램이 종결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이 1년 후 추적한 재학대율을 부모의 자기보고측정치에 덧붙여 확인하고자 하였다. 무엇보다 아동보호서비스의 최우선 목표는 아동의 안전을 보호 하는데 있다. 따라

서 재학대율이야말로 아동보호서비스의 효과성을 평가할 수 있는 가장 사회적으로 타당한 성과지표라고 할 수 있다. 재학대율의 기초자료로 가장 많이 인용되는 것은 매년 발표되는 국가행정데이터인 ‘아동학대 주요통계’가 있다. 2018 아동학대 주요통계에서 재학대율은 11.4%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공표된 아동학대 재학대율은 10%대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10건의 아동학대 사례 중 1건 정도가 재학대를 기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학대유형 중에서 방임의 재학대를 조사한 연구에서도 10명 가운데 1명 정도가 지속적으로 방임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배화옥, 강지영, 2015). 아동보호체계의 역사가 길고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국외는 우리나라보다 재학대율이 오히려 높게 기록되고 있다. 미국에서 18~24개월 내에 전향적 조사방식으로 재학대율을 조사했을 때 수년간 20%대로 나타나고 있다(White, Hindley, & Jones, 2015). 이러한 수치는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학대 위험성이 높다고 해석되기 보다는 아동보호서비스 체계가 면밀할수록 재학대를 발견할 가능성이 높은 데에 기인한다고 본다(장희선, 김기현, 김경희, 2016).

그런데 아쉬운 점은 국내 아동학대통계의 재학대율은 당해연도 총 아동학대사례 수 대비 과거 5년 이내 학대판정을 받은 이래 당해연도에 발생한 재학대사례수의 비율로서 본 연구에서 관심을 갖는 전향적으로 측정된 재학대율과는 그 의미가 조금 다르다는 것이다. 전향적으로 재학대율을 추적하였다는 것은 학대판정을 받은 후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재학대 여부를 측정하였다는 의미이다. 국내에도 전향적으로 재학대율을 보고한 소수의 연구가 있다. 장희선 등(2016)은 2012년 총 5,542건을

3년 후에 추적한 일반적 아동학대사례의 재학대율을 5.8%로 보고하였다. 그 이전의 연구(김세원, 2008)에서 2004년 발생한 아동학대사례 6,665명을 11개월 후 추적하였을 때, 재학대율이 5.1%로 나타났다. 대상을 달리하여 분리된 학대피해아동의 원가정 재결합 후 재학대 위험율을 12개월 후 추적한 결과는 6.7%로 나타났다(진재찬, 이순기, 정해린, 선우진희, 유서구, 2019). 요약하면, 상술한 국가기관에서 보고하는 재학대율 외에 행동적 부모훈련의 재학대 억제효과를 비교할 수 있는 기초연구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진재찬 등, 2019).

국내에서 눈을 돌려 국외를 살펴보면, 행동적 부모훈련의 재학대 억제 효과가 상당히 일관적으로 지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러 메타연구에서 재학대율 감소에 대한 행동적 부모훈련의 효과크기는 중간 수준에서 높은 수준 사이에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arlow et al., 2006, Santini & Williams, 2016, Chen & Chan, 2015). Vlahovicova 등(2017)은 비교적 최근에 분석의 포함 조건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선별한 14편의 행동적 부모훈련에 대해서 메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들의 연구결과 행동적 부모훈련 조건은 비교조건(즉, 통상적 치료 조건, 무통제 조건 등)에 비해 처치 후 11% 재학대 위험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술한 바와 같이 본 연구의 프로그램 효과를 재학대율로 평가하기 위해서 동일한 방식으로 재학대율을 조사한 기초연구가 필요하지만 현재로서 비교자료로 사용할 수 있는 연구가 매우 제한적인 현실이다. 그러나 재학대율은 아동학대 분야에서 정책적으로나 학술적으로나 중요성이 매우 높은 지표이므로 본 연구에서 1년 후 전향적 재학대율을 조사하고자 한다. 이는 타당한 비교를 할 수 있는 충분한

데이터가 집적될 때 메타분석과 같은 방식으로 성과가 재평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다. 본 훈련이 종결되고 1년 후 전향적으로 재학대율을 조사하되, 아동보호전문기관에 공식적으로 접수된 건만을 확인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학대분야에 대해 효과가 확인된 행동적 양육기술훈련이 국내 학대 장면에서도 마찬가지로 효과적일지 검증 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보다 비용 효율적인 학대에 방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 방 법

###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2018년도 OO광역시 아동보호 종합센터에서 실시한 부모훈련(일명 가족기능 강화사업)에 참가한 학대행위부모와 피해아동을 대상으로 하였다. 아동보호종합센터에서는 2018년 1월부터 OO광역시 전역 3개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대상자를 추천 받았다. 3개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사전에 각 대상자에게 본 프로그램을 추천하면서 프로그램 참여 및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를 구하였고 서면 동의서에 서명을 한 사례만이 연구에 포함되었다. 프로그램에 대한 피해아동의 참여는 권장되지만 필수사항은 아니었기 때문에 아동에게 사전에 프로그램 참여 및 연구 참여 동의를 구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친권을 가지고 있는 법적 보호자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관리 담당자는 본 연구에 아동에 대한 국가행정데이터 및 평가정보가 사용될 것이라는 설명을 들었고 이에 동의하였다. 2018년 3월부터 7월

까지 의뢰된 총 27사례의 대상자들은 학대판정은 받았지만 아직 법원의 보호처분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거나 과거에 보호처분을 받았던 사람들이다. 추천된 27사례 중 부모훈련을 거부하거나 조기 중단된 8사례를 제외하고 19사례의 학대행위부모가 연구대상자가 되었다. 조기 중단된 8사례 중 6사례는 학대행위부모는 이사 등의 이유로 부모훈련참여를 거부하였다. 나머지 2사례 중 1사례는 담당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다른 서비스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중단을 요청하였고, 또 다른 1사례는 대상자가 심각한 알콜 중독 및 우울증으로 인해 부모훈련 진행이 불가능한 상태로 판단하였다. 19사례 중 14사례는 학대행위부모와 피해아동이 같이 거주하는 상황에서 실행되었고, 2사례는 피해아동이 다른 시설로 분리된 상태에서 학대행위부모에게 실시되었으며, 3사례는 학대행위부모만 다른 거처로 분리된 상황에서 비행위부모에게 실시되었다. 본 부모훈련은 기본적으로 부모와 치료사가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다. 이 경우 치료사가 회기 안에서 부모에게 양육기술을 훈련시키고 이를 매일 실행하는 과제를 부모에게 제출하면, 부모는 매일 자녀와 함께 양육기술을 연습한다. 그런데 치료사가 가정에 직접 가정에 방문하여 훈련을 진행하는 특성상, 부모훈련 회기 중에 아동이 함께 하여 치료사, 부모, 아동 삼자가 함께 진행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렇듯 부분적으로 아동이 회기에 참여한 사례는 6사례로 아동은 평균적으로 5.8회기를 참여하였고, 아동이 미참여한 사례는 13사례였다.

연구대상자의 특성은 표 1과 같다. 아동학대를 범한 사람들을 가해자 또는 행위자라고 부른다. 본 연구의 대상은 아동의 안전과 발달을 적극적으로 직접적으로 해를 입힌 것뿐

표 1. 연구대상자의 특성

구분		실험집단(N=19) 빈도(비율)
대상부모	부	3(15.8)
	모	16(84.2)
대상부모 연령	20대	2(10.5)
	30대	8(42.1)
	40대	9(47.4)
자녀수	1명	6(31.6)
	2명	9(47.4)
	3명 이상	4(21)
대상아동 성별	남	8(42.1)
	여	11(57.9)
대상아동 연령	만 0세 ~ 만 12세	13(68.4)
	만 13세 ~ 만 18세	6(31.6)
학대유형	중복학대	11(57.9)
	신체학대	4(21)
	정서학대	2(10.5)
	성학대	1(5.3)
참가자 형태*	아동분리	
	행위자 대상	2
	행위자분리	
	비행위자 대상	3
	미분리	
	행위자 대상	13
아동참여여부	아동참여	6
	아동미참여	13
	아동미참여	13

주. 아동분리 = 학대조치로서 가정에서 아동이 분리되어 시설에 거주하는 상황; 행위자분리 = 부부의 이혼 또는 별거로 행위자와 가구가 분리된 상황; 미분리 = 학대조치로서 누구도 가정 밖으로 분리되지 않은 상황.

만 아니라 방임과 같이 소극적으로 피해를 입힌 경우를 포함하고 있어 가해자 보다는 행위자 또는 행위부모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김윤정, 2010).

#### 측정 도구

##### **양육스트레스(Parenting Stress Index; PSI)**

부모의 양육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해 Abidin(1990)의 Parenting Stress Index(PSI)를 서혜영(1992)이 번안한 36문항을 사용하였다. 양육스트레스척도는 부모-자녀 체계의 역기능적 측면이나 부모에게 스트레스를 촉발하는 요인을 밝히고자 개발한 부모용 자기보고식 질문지이다. 이 척도는 '부모의 고통', '부모-아동 간 역기능적 상호작용', '아동의 까다로운 기질'의 세 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요인별 12문항씩 총 3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1요인 '부모의 고통'은 부모역할을 수행하면서 경험하는 부모 개인의 고통을 말하고, 2요인 '부모-아동 간 역기능적 상호작용'은 부모가 아동과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스트레스를, 3요인 '아동의 까다로운 기질'은 아동의 기질이나 아동의 새로운 변화에 대한 낮은 적응력으로 인해 부모가 경험하는 스트레스를 의미한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1점-전혀 그렇지 않다, 2점-대체로 그렇지 않다, 3점-보통이다, 4점-대체로 그렇다, 5점-매우 그렇다)로 구성되고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의 양육스트레스가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가능한 총점의 범위는 36~180점이다. 본 연구에서 척도의 내적 합치도는 .96으로 나타났다.

##### **양육태도(Parenting Attitude Test; PAT)**

부모의 양육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임호찬

(2008)이 표준화단계를 거쳐 개발한 부모양육태도검사(Parenting Attitude Test; PAT)를 사용하였다. 양육태도(PAT)는 총 43문항으로 '지지표현', '합리적 설명', '성취 압력', '간섭', '처벌', '감독', '과잉기대', '비일관성' 등 8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지표현'은 자녀에게 애정을 보이는 정도, '합리적 설명'은 자녀의 잘못을 꾸중할 때 자녀의 입장에서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려 노력의 정도, '성취압력'은 사회적 성공을 강하게 요구하는 정도를 평가하는 척도이다. 또한 '간섭'은 자녀의 생활을 잘 인정하지 않으려는 정도, '처벌'은 주로 신체적 처벌이나 심리적 위협을 가하는 정도, '감독'은 자녀의 일상 스케줄을 파악하고 있는 정도를 평가하는 척도이다. 마지막으로 '과잉기대'는 암묵적인 기대의 정도, '비일관성'은 자녀 행동에 대한 꾸지람의 기준이 비일관적인 정도를 평가하는 척도이다(권현지, 2011). 본 연구에서는 허묘연(2004)의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본 척도의 각 하위요인을 긍정적 양육태도와 부정적 양육태도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따라서 '지지표현', '합리적 설명', '감독'은 긍정적 양육태도로, '성취압력', '처벌', '과잉기대', '비일관성', '간섭'은 부정적 양육태도로 나누어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1점-전혀 그렇지 않다, 2점-대체로 그렇지 않다, 3점-보통이다, 4점-대체로 그렇다, 5점-매우 그렇다)로 구성된다. 본 연구에서 긍정적 양육태도의 내적합치도는 .89, 부정적 양육태도의 내적합치도는 .89로 나타났다.

##### **아동행동 측정도구(Eyberg Child Behavior Inventory; ECBI)**

아동의 공격적 행동문제를 측정하기 위해 Eyberg Child Behavior Inventory(ECBI)를 사용하

였다. 아동행동 측정도구(ECBI)는 공격적 행동문제가 있는 아동과 청소년을 측정하기 위한 부모평정 측정도구로서(McMahon & Estes, 1997), 아동학대행위자를 대상으로 한 행동적 부모훈련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평가할 때 선행연구에서 자주 사용되었다(Hurlburt et al., 2013). 본 연구에서는 두정일(2010)이 타당화한 36문항을 사용했다. 전체 문항 중 허구요인(18 문항)을 제외한 ‘반항적 행동(9문항)’, ‘부주의 행동(4문항)’, ‘폭행문제행동(5문항)’의 세 가지 하위요인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문제행동의 발생빈도를 측정하는 강도점수(Intensity Score; IS)와 각 문항의 문제행동이 부모에게 문제로 되는지 여부를 네, 아니오로 측정하는 문제점수(Problem Score; PS)로 나뉘어 측정된다. 강도점수(IS)의 경우 얼마나 자주 그 행동이 일어나는 지 부모가 7점 Likert 척도(1점-전혀 안 그렇다, 2점-아주 가끔, 3점-가끔, 4점-절반정도, 5점-자주, 6점-매우자주, 7점-항상 그렇다)로 측정한다. 문제점수(PS)는 각 문항에 대해 ‘현재의 이 행동이 여러분에게 문제가 됩니까?’라는 질문에 ‘예, 아니오’로 표시한다. ‘예’는 1점, ‘아니오’는 0점으로 측정하고 이를 합산하여 사용한다. 강도점수(IS)는 점수의 범위는 18~126점이고, 문제점수(PS)는 18개의 행동 중 부모에게 문제가 되는 것으로 표시된 총 수를 나타내며 점수의 범위는 0~18점이다(두정일, 2010). 본 연구에서 척도의 내적 합치도는 .92로 나타났다. 본 프로그램의 대상자 부모가 ECBI를 측정하였으며 이 중에는 학대행위부모가 16명, 비행위부모가 3명이었다.

### 중재충실도

중재충실도는 중재프로그램이 목적에 따라

일관성 있게 수행되고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이애진, 2016), 객관적이고 일관적으로 프로그램이 실시되는지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연구의 타당도를 위해 필요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차재경, 2013). 본 연구에서는 김윤희 등(2018)에 수록된 회기별 중재충실도를 모든 상담사로 하여금 각 회기가 끝날 때마다 작성하도록 하였다. 김윤희 등(2018)의 중재충실도는 회기별로 구조화된 진행 절차(예, 지난 회기에 대한 리뷰, 숙제점검, 과제 어려움 탐색, 회기별 치료요소 내용 설명, 내용별 역할극 연습, 과제 제출, 부모 격려, 회기평가 등)를 준수했는지 네(O표), 아니오(X표)로 측정한다. 한 회기당 평균 중재충실도 문항의 수는 11.8개였다. 중재충실도는 다음과 같이 산출하였다.

$$\text{중재충실도} = \frac{\text{'O'를 표시한 문항 수}}{\text{전체 문항 수}} \times 100$$

### 재학대 발생 비율

본 프로그램에 참석한 이후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해당 지자체의 아동보호전문기관 3곳으로 하여금 재학대 여부를 추적하게 하여 재학대 발생비율을 산출하였다.

### 연구절차

본 연구의 진행은 2018년 OO광역시아동보호종합센터의 가족기능강화사업의 일정과 병행하여 진행되었다. OO광역시아동보호종합센터에서는 OO광역시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행위부모를 위한 기존의 가족기능강화사업을 근거기반치료를 전환하고자 지역대학 연구진에게 부모훈련 매뉴얼을 제작을 의뢰하였다. 그

결과 행동주의 원리에 기반 한 부모훈련 프로그램 매뉴얼을 김윤희 등(2018)이 개발하였고, 이 매뉴얼에 기초하여 2018년 가족기능강화사업이 진행되었다. 이를 위해 OO광역시아동보호종합센터는 2018년 1월에 당해 가족기능강화사업을 실시하는 상담사를 새로 선발하였다. 일정 자격 기준을 가진 총 23명의 상담사가 선발되었다. 상담사 선발 기준은 상담관련학과 석사 이상의 학력과 한국상담심리학회 공인 상담심리사 2급 이상, 한국상담학회 공인 전문상담사 3급 이상, 청소년상담사 3급 이상,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이다.

새로 선발된 상담사들을 대상으로 연구진은 3일간 20시간 이상 매뉴얼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2018년 3월부터 각 가정마다 상담사를 무선으로 배정하였고 가정마다 상담사가 직접 방문 상담하여 주당 1회기씩 평균 12회기(약 3개월)의 부모훈련을 실시하였다. 2018년 3월부터 11월까지 실시된 사례가 본 연구 자료로 쓰였다. 종속변수는 사전-사후 2회기에 측정하여 두 시점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1회기에 사전검사를, 12회기에 사후검사를 확대행위부모에게 실시하였다.

프로그램 진행 전, 내담자와 상담사는 프로그램 진행 및 연구, 비밀보장에 대한 동의서를 작성하였다.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동안 매뉴얼에 충실한 중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존의 학대가정을 위한 행동적 부모훈련의 선행연구와 유사한 방식으로 질 관리(quality insurance)를 시행하였다(Hurlburt et al., 2013; Prinz et al., 2009). 상담사가 매 주 제출하는 중재충실도를 연구자가 체크하였으며, 매 회 제출된 일지에 대해 상세하게 주별로 검토하여 피드백을 제공하였고, 상담사의 요청에 따라 상시적으로 응급전화사례지도도를 시행하였

다. 끝으로 모든 상담사들이 참여하는 총 6번의 대면사례회의를 개최하였다. 대면사례회의 시에는 한국상담심리학회 상담심리사 1급, 한국심리학회 공인 임상심리전문가를 취득한 상담심리전공 교수이자 본 매뉴얼의 개발자가 슈퍼바이저가 되어 프로그램의 매뉴얼에 따라 충실하게 상담이 이루어지도록 지도감독 하였다. 사례회의 때는 당시 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모든 상담사들이 참석하여 사례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실제적, 이론적, 행정적 고충에 대해서 자유롭게 질의하였고 이에 대해서 슈퍼바이저가 답변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상담사의 요청에 따른 응급전화 사례지도 역시 슈퍼바이저가 제공하였다. 전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과정은 매뉴얼을 준수하되 행동주의적 관점에 따라 문제 해결중심으로 컨설팅을 진행하였다.

### 상담사

본 프로그램에 참여한 상담사의 학력은 상담관련 전공(즉, 상담심리학, 교육상담학, 가족상담학 등) 석사이상 수준이었다. 대부분의 상담사의 자격은 한국상담학회 공인 전문상담사 2급, 사회복지사 2급, 여성가족부 인증 청소년상담사 3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하고 있었다. 70% 이상의 자격증이 한국상담학회 자격증인 이유는, OO광역시 상담사들의 상당수가 비교적 취득이 용이한 한국상담학회 자격증을 취득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본 상담사들은 가족기능강화사업에 한시적으로 채용된 것이기 때문에 따로 본인의 상담센터를 운영하거나 건강가족지원센터 및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공공기관에 소속된 상담사를 겸직하고 있는 경우가 일부 있었다. 선발된 상담사의 특성은 표 2와 같다.

표 2. 상담사의 연령, 학력, 자격

구분	총 인원(N=19)	
	빈도(비율)	
연령	30대	2(8.7)
	40대	6(26.1)
	50대	13(56.5)
	60대	2(8.7)
최종학력	학사	1(4.3)
	석사수료	2(8.7)
	석사	14(60.9)
	박사수료	1(4.3)
	박사	5(21.8)
자격증	전문상담사1급	3(13.1)
	전문상담사2급	13(56.6)
	전문상담사3급	1(4.3)
	사회복지사1급	1(4.3)
	사회복지사2급	4(17.4)
	청소년상담사3급	1(4.3)

**처치도구: 행동적 부모훈련 프로그램**

본 연구에서는 김윤희 등(2018)의 행동적 부모훈련 프로그램을 처치도구로 사용하였다. 이는 Incredible Years(IY, Webster-Stratton, 2011), Parent-Child Interaction Therapy(PCIT, McNeil & Hembree-Kigin, 2013), Defiant Children(Barkley, 2013)를 12회기로 재구성한 것이다. 이 세 가지 프로그램은 모두 불순응, 공격성, ADHD 등의 문제를 가진 아동의 부모의 양육기술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개발되었다(Weisz, 2004). 학대피해아동들의 상당수가 불순응을 포함한 광범위한 외현화 문제를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기 때문에 이상 국외 프로그램은 학대행위부모들에게 적용되어 왔다. 모든 프로그램은 부

모가 아동과 부정적으로 상호작용(예, 비난, 체벌, 방임 등)하는 부분에 초점을 두고 가정 내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상황에서 긍정적으로 훈육할 수 있도록 양육기술을 훈련시키도록 되어 있다. 부모는 자녀와 긍정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양육기술을 배움으로써 자녀와 긍정적 애착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세 가지 프로그램의 개념적 기초는 유사하다. 모두 행동주의에 기반하여 구체적인 양육기술을 가르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양육기술의 내용구성도 유사하여, 초반에는 부모와 자녀의 긍정적 관계를 증진하는 특별놀이, 칭찬하기, 지시하기 등의 기술이 배치되며, 후반에는 자녀의 문제행동을 수정하는 무시하

기, 보상제도, 타임아웃이 배치된다. 이러한 양육기술이 전달되는 방식에서는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Incredible Years는 주로 비디오 모델링을 통한 관찰학습 방법을 적용하는 반면, PCIT는 1:1 부모자녀 상호작용에서 이상의 기술을 적용하는 과정을 일방경 뒤에서 실시간으로 코칭하는 형태를 띤다. Barkley의 부모훈련 프로그램에서는 집단으로 기술교육을 실시한다. 김윤희 등(2018)은 이 세 가지 프로그램의 개념적 기초와 양육기술의 내용적 구성의 틀은 그대로 가져오되, 이를 가정방문상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1:1 개인훈련 매뉴얼로 재구성하였다.

김윤희 등(2018)의 각 회기의 진행순서는 동

일하다. 진행순서는 1) 지난 회기 복습, 2) 과제 점검 및 피드백, 3) 핵심 양육기술 교육, 4) 역할극 연습, 5) 요약 및 과제 안내, 6) 마무리 및 평가 순서로 구성된다. 교육내용은 역할극과 토론을 중심으로 체험적인 방식으로 전달하고 한 회기 당 60분으로 구성되었다. 전반부 1회기부터 6회기까지는 부모-자녀 관계성을 증진하는 기술, 후반부 7회기부터 12회기까지는 자녀의 문제행동을 수정하는 기술로 구성되었다. 각 회기별 핵심 기술은 표 3에 제시하였다. 매 회기마다 상담사의 회기일지, 중재충실도, 부모의 회기평가를 통해 프로그램의 진행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였다.

표 3. 행동적 부모훈련 프로그램 회기개요(김윤희 등, 2018)

회기	제 목	활동내용	회기	제 목	활동내용
1	교육소개	1. 부모와 라포 형성 2. 프로그램 소개 3. 부모훈련 목표 설정	7	집안규칙	1. 집안규칙의 중요성 이해 2. 집안규칙 설계 3. 집안규칙 실행 역할극
2	특별놀이	1. 특별놀이 가치 이해 3. 특별놀이 역할극 3. 모델링 및 관심 규칙 이해	8	지시하기	1. 지시하기 중요성 이해 2. 지시하기 역할극 3. 부주의에 대한 지시하기 역할극
3	감정코칭 참여성 코칭	1. 감정코칭 이해 2. 감정코칭 역할극 3. 참여성 코칭 역할극	9	무시하기	1. 무시하기 중요성 이해 2. 무시하기 목표행동 확인 3. 무시하기 역할극
4	사회성 코칭	1. 사회성 코칭 이해 2. 부모-자녀 사회성 코칭 역할극 3. 또래 사회성 코칭 역할극	10	타임아웃1	1. 타임아웃의 중요성 이해 2. 타임아웃 준비하기 역할극 3. 부모의 감정 통제 연습
5	칭찬하기	1. 칭찬의 중요성 이해 2. 효과적인 칭찬방법 역할극	11	타임아웃2	1. 불순응 행동 타임아웃 이해 2. 불순응 행동 타임아웃 역할극
6	보상하기	1. 보상제도의 중요성 이해 2. 목표행동 정의방법 숙지 3. 보상과 뇌물 차이점 이해 4. 보상제도 수립방법 숙지 5. 보상제도 소개 역할극	12	타임아웃3	1. 공격적 행동 타임아웃 이해 2. 공격적 행동 타임아웃 역할극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독립변인은 행동적 부모훈련 프로그램, 종속변인은 부모의 양육스트레스, 양육태도, 아동의 공격적 행동문제, 재학대율이다. 단일집단 사전-사후 실험설계를 사용하였으므로 대응표본 *t*-검정을 일차적으로 실시하였다. 집단 변화량의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Cohen(1988)의 *d*값을 산출하였다. 또한, 본 프로그램에서 아동이 진행 중에 부모와 같이 참여한 여부에 따른 치료효과를 분석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판단되어 각 종속변수별로 이원반복측정분산분석(즉, 2(아동참여, 미참여)×2(사전, 사후) ANOVA)를 실시하였다. 개인별로 효과가 있었는지 판단하기 위해서 Jacobson-Truax 방법에 따라 임상적 유의도를 산출하였다(Peterson, 2008). Jacobson-Truax는 치료를 통해서 각 개인의 개선 정도를 판단하는 임상적 유의도를 절단점과 차이분석을 통해서 4가지 수준으로 정의하였다. 절단점이란 각 척도별로 임상수준과 정상수준을 구별할 수 있는 사전에 정의된 임계값을 의미한다. 개인은 치료를 통해서 1) 회복(절단점 이상+RCI 양의 값), 2) 개선(RCI 양의 값), 3) 무변화(RCI 0점), 4) 악화(RCI 음의 값) 될 수 있다. 본 연

구에서 사용된 종속변수들은 절단점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RCI에 근거해서만 임상적 유의도를 평가하였다.

결 과

부모훈련 프로그램 효과검증

양육스트레스(PSI) 사전-사후 변화

본 연구에서는 행동적 부모훈련 프로그램 실시 후 부모의 양육스트레스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프로그램 전과 후에 양육스트레스 검사를 진행하였고, 각 하위요인인 ‘부모의 고통’, ‘부모-아동 간 역기능적 상호작용’, ‘아동의 까다로운 기질’과 ‘양육스트레스 총점’의 사전-사후 평균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t*검정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4와 같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부모가 보고한 ‘부모의 고통( $t=5.77, p<.001$ )’, ‘부모-아동 간 역기능적 상호작용( $t=5.07, p<.001$ )’, ‘아동의 까다로운 기질( $t=5.76, p<.001$ )’에서 사전에 비해 행동적 부모훈련을 실시한 사후 평균이 유의미하게 감소하였다. 부모가 보고한 ‘양육스트레스 총점( $t=6.03, p<.001$ )’이 사전에 비해 유의미하

표 4. 양육스트레스 사전-사후 *t*검정 (N=19)

검사	평균		표준편차		<i>t</i>
	사전	사후	사전	사후	
부모의 고통	3.28	2.38	.81	.92	5.77***
부모-아동 간 역기능적 상호작용	3.00	2.04	1.11	.86	5.07***
아동의 까다로운 기질	3.26	2.11	1.00	.90	5.76***
양육 스트레스 총점	3.18	2.17	.89	.86	6.03***

주. \*\*\* $p<.001$ , \*\* $p<.01$ , \* $p<.05$

게 감소하였다. 변화량의 크기를 객관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 효과크기로서 Cohen(1988)의 *d*값을 산출하였다. *d*를 분류하는 최근 기준은 다음과 같다(Sawilowsky, 2009). *d*값이 .2이하일 때 무효과크기, 0.2 이상 0.5 미만일 때 낮은 효과크기, 0.5 이상 0.8 미만일 때 중간 효과크기, 0.8 이상 1.2 이하일 경우 높은 효과크기, 1.2 이상일 경우 매우 높은 효과크기로 분류한다. 양육 스트레스에 대한 효과크기(Cohen's *d*)는 1.38이었다. 이는 *d*를 분류하는 최근 기준에 따르면(Sawilowsky, 2009), 매우 높은(very large) 효과크기에 달한다. 양육스트레스에 대해서 임상적 유의도를 분석한 결과(Peterson, 2008), 양육스트레스에서 개선된 효과를 보인 참가자들은 전원(100%)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학대행위부모에게 행동적 부모훈련을 실시했을 때 부모가 지각한 양육스트레스가 상당 수준으로 감소시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

**양육태도(PAT) 사전-사후 변화**

본 연구에서는 행동적 부모훈련 실시 후 부모의 양육태도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프로그램 전과 후에 양육태도검사를 진행하였고, 각 하위요인인 ‘지지표현’, ‘합리적 설명’, ‘성취압력’, ‘처벌’, ‘감독’, ‘과잉기대’, ‘비일관성’, ‘간섭’과 함께 이를 두 가지 큰 범주로 나눈 ‘긍정적 양육태도’, ‘부정적 양육태도’의 사전-사후 평균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t*검정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5와 같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부모가 보고한 ‘긍정적 양육태도’ 총점( $t=-4.74, p<.001$ )이 사전에 비해 부모훈련을 실시한 사후 유의미하게 증가한 반면, ‘부정적 양육태도 총점( $t=7.48, p<.001$ )’은 사전에 비해 사후에 유의미하게 감소하였다. 긍정적 양육태도의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지지표현( $t=-4.20, p<.01$ )’, ‘합리적 설명( $t=-4.51, p<.001$ )’, ‘감독( $t=-2.19, p<.05$ )’의 평균이 부모훈련을 실시하기 전인 사전에

표 5. 양육태도 사전-사후 *t*검정 (N=19)

검사	평균		표준편차		<i>t</i>	
	사전	사후	사전	사후		
긍정적 양육태도	지지표현	3.63	4.14	.63	.63	-4.20***
	합리적 설명	3.39	4.04	.73	.52	-4.51***
	감독	3.41	3.76	.72	.46	-2.19*
	전체	3.49	4.01	.57	.45	-4.74***
부정적 양육태도	성취압력	2.87	2.29	.82	.82	3.70**
	처벌	3.30	2.16	.82	.76	7.35***
	과잉기대	3.51	2.89	.91	.85	3.84***
	비일관성	3.33	2.40	.91	.82	4.37***
	간섭	3.51	2.64	.79	.64	7.11***
	전체	3.29	2.47	.63	.46	7.48***

주. \*\*\* $p<.001$ , \*\* $p<.01$ , \* $p<.05$

비해 사후에 유의미하게 증가하였다. 부정적 양육태도의 하위요인인 ‘성취압력( $t=3.70, p<.01$ )’, ‘처벌( $t=7.35, p<.001$ )’, ‘과잉기대( $t=3.84, p<.01$ )’, ‘비일관성( $t=4.37, p<.001$ )’, ‘간섭( $t=7.11, p<.001$ )’의 평균이 부모훈련을 실시한 사전에 비해 사후에 유의미하게 감소하였다. 즉, 행동적 부모훈련 프로그램을 이수한 학대행위부모는 자녀에게 애정을 가지고 격려하는 등의 더 많은 지지적인 표현을 하게 되었고(지지표현), 자녀에게 훈육을 할 때 그 이유를 자녀의 입장에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더 설명하게 되었으며(합리적 설명),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 자녀가 어디에 있고 무엇을 하는지 관심을 기울이고 살피는 모습(감독)이 늘어나게 되었다. 반면, 지나치게 학업성취를 요구하는 모습이나(성취압력), 신체적인 처벌이나 정서적인 위협(처벌), 자녀에게 높은 기대를 부과하여 부담을 주는 방식(과잉기대), 훈육을 하는 이유나 방식이 부모의 기분 따라 달라지는 비일관적인 훈육방식(비일관성), 자녀의 의사나 욕구를 포함한 사생활을 지나치게 좌지우지하는 모습(간섭)은 훈련에 참가하기 전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긍정적 양육태도에 대한 효과크기는 1.09이었고, 부정적 양육태도에 대한 효과크기는 1.72이었다. 이는 각각 높은 효과크기와 매우 높은 효과크기에 해당한다. 이는 행동적 부모훈련 프로그램이 학대행위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를 크게 증가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부정적 양육태도를 억제하는 효과가 매우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 양육태도에 대해서 임상적 유의도를 분석한 결과(Peterson, 2008), 긍정적 양육태도에서 개선된 효과를 보인 참가자는 총 16명, 84.21%, 부정적 양육태도에서 개선된 효과를 보인 참가자는 총 18명, 94.74%로 나타났다.

#### 아동행동 측정도구(ECBI) 사전-사후 변화

본 연구에서는 행동적 부모훈련 프로그램 실시 후 아동의 행동문제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프로그램 전과 후에 아동의 불순응, 공격적 문제행동을 측정하는 아동행동 측정도구(ECBI)를 측정하였다. ECBI의 하위요인인 ‘반항적 행동’, ‘부주의 행동’, ‘품행문제행동’과 ‘전체 문제빈도’, ‘전체 문제여부’의 사전-사후 평균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t$ 검정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6과 같다. 분석결과를 살

표 6. 아동의 행동문제 사전-사후  $t$ 검정 (N=19)

검사	평균		표준편차		$t$
	사전	사후	사전	사후	
반항적 행동	4.17	2.10	1.91	1.16	5.80***
부주의 행동	4.39	2.61	1.88	1.54	4.36***
품행문제 행동	2.69	1.68	1.45	.78	4.07***
전체 문제강도(IS)	3.80	2.10	1.53	1.02	6.00***
전체 문제여부(PS)	.56	.20	.33	.24	5.53***

주. \*\*\* $p<.001$ , \*\* $p<.01$ , \* $p<.05$

해보면, 부모가 보고한 아동의 ‘반항적 행동( $t=5.80, p<.001$ )’, ‘부주의 행동( $t=4.36, p<.001$ )’, ‘폭행문제행동( $t=4.07, p<.01$ )’의 평균이 사전에 비해 부모훈련을 실시한 사후에 유의미하게 감소하였다. 또한 부모가 보고한 문제 발생 빈도인 ‘전체 문제강도( $t=6.00, p<.001$ )’가 사전에 비해 유의미하게 감소하였으며, 문제가 되는지 여부를 묻는 ‘전체 문제여부( $t=5.53, p<.001$ )’ 점수도 사전에 비해 유의미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문제의 발생빈도인 발생강도의 변화에 대한 효과크기는 1.38이었고 문제가 되는 것으로 여겨지는 행동의 개수인 문제여부의 변화에 대한 효과크기는 1.27이었다. 이는 모두 매우 높은 효과크기에 해당하는 것이다. 즉, 행동적 부모훈련을 실시한 결과, 부모가 지각한 아동의 문제행동 발생빈도와 문제로 여겨지는 정도가 매우 높은 효과크기로 감소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아동의 행동문제에 대해서 임상적 유의도를 분석한 결과(Peterson, 2008), ‘전체 문제강도’에서 개선된 효과를 보인 참가자는 총 18명, 94.74%, ‘전체 문제여부’에서 개선된 효과를 보인 참가자는 총 18명, 94.74%로 나타났다.

#### 회기 중 아동의 참여여부에 따른 사전-사후 변화

부모훈련 중 부과된 과제를 통해서 부모와 아동이 긍정적 상호작용을 한 경우 외에, 부모훈련 회기 중에 아동이 치료사, 부모와 함께 참여한 사례가 있었다. 아동의 회기 중에 직접 참여 여부가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 SPSS 22.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이원반복측정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아동의 프로그램 참여여부에 따른 주효과는 양육 스

트레스( $F=.253, p=.621, n.s$ ), 긍정적 양육태도( $F=.250, p=.624, n.s$ ), 부정적 양육태도( $F=.005, p=.944, n.s$ ), 아동 행동문제의 전체 문제강도( $F=1.142, p=.300, n.s$ ) 및 전체 문제여부( $F=2.216, p=.163, n.s$ )에서 유의미하지 않았다. 또한 아동의 참여 여부와 시점의 상호작용 효과도 양육 스트레스( $F=.039, p=.846, n.s$ ), 긍정적 양육태도( $F=.043, p=.838, n.s$ ), 부정적 양육태도( $F=.676, p=.422, n.s$ ), 아동 행동문제의 전체 문제강도( $F=.688, p=.418, n.s$ ) 및 전체 문제여부( $F=.563, p=.463, n.s$ )에서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상의 결과는 회기 중 아동의 직접 참여 여부와 상관없이 프로그램의 완수 여부만이 종속 측정치에서 유의미한 사전-사후 변화를 만들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과제를 실행하면서 이루어지는 부모-자녀간 긍정적 상호작용으로 유의미한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으며 회기 중 아동의 직접 참여여부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이러한 결과를 해석할 때 표집의 수가 작고, 각 셀별 n수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통계적 검정력이 현저히 낮은 상황이라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 1년 후 재학대 비율

프로그램 종료 후 1년이 지난 시점에서 해당 아동보호전문기관 사례관리팀을 통해 참가한 학대행위부모의 재학대 여부를 추적 조사하였다. 19사례 중 1사례에서 재학대가 발견되어 종료 후 1년 시점의 재학대율은 5.2%로 나타났다.

#### 중재충실도

중재충실도는 중재프로그램이 각 상담사들에 의해서 매뉴얼에 충실하게 진행되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상담사가 12회기를 진행하는 동안 매회기 체크하여 보고하도록 하였다. 각 상담사의 회기별 중재충실도를 산출한 후 전체 회기의 중재충실도의 평균을 산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상담사들의 평균 중재충실도는 96.2%로 측정되어 행동적 부모훈련 처치의 중재충실도는 충분한 수준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 논 의

본 연구는 학대행위부모를 대상으로 실시된 행동적 부모훈련 프로그램이 부모의 양육스트레스, 양육태도 및 아동의 문제행동 감소, 재학대 예방에 효과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실시되었다. 이를 위해 아동학대로 신고되어 OO광역시 아동보호종합센터의 가족기능강화 사업에 의뢰된 19쌍의 부모가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와 관련하여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행동적 부모훈련 프로그램 실시 후, 아동학대행위부모가 보고한 양육스트레스(PSI) 점수가 매우 높은 효과크기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임상적 유의도를 분석했을 때 전원 19명의 양육스트레스가 모두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참가자들은 PSI의 하위 척도 중에서 ‘부모의 고통’이 유의미하게 감소하였다고 지각하였다. 또한 다른 요인인 ‘부모-아동 간 역기능적 상호작용’과 ‘아동의 까다로운 기질’ 척도 또한 유의미하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을 풀어서 살펴보면, 본 연구의 참가자들은 행동적 부모훈련에서 배운 양육기술을 통해 아동과 긍정적으로 상호작용(부모-아동간 역기능적 상호작용)하였고 그 결과 아동의 까다로운 문제행동(아동의 까다로운 기

질)이 감소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부모의 양육 고통(부모의 고통)이 큰 폭으로 경감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행동적 부모훈련 프로그램이 아동학대행위부모의 양육스트레스를 상당 수준 감소시킴으로써 보다 긍정적으로 양육에 임하도록 도울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다양한 형태의 부모훈련 프로그램이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를 감소시킨다는 국내외 선행연구들(구회정, 2016; 문성주, 김성길, 2013; 정희승 등, 2015; 최경화, 홍상우, 2016)을 지지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서 양육스트레스 감소에 대한 행동적 부모훈련 프로그램 효과를 입증한 국외 연구들(Feldman & Werner, 2002; Furlong et al., 2013; Timmer et al., 2005)과 맥락을 같이한다.

둘째, 행동적 부모훈련 프로그램 실시 후, 아동학대행위부모가 보고한 양육태도(PAT) 점수가 높은 효과크기 이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임상적 유의도 분석 시 부정적 양육태도 면에서 1명을 제외하고 모두 양육태도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긍정적 양육태도 면에서 3명을 제외하고 모두 양육태도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후 학대행위부모들은 자녀에게 더 많은 지지를 표현하고 훈육을 할 때 그 이유를 설명하며 자녀의 생활에 더욱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 또한 자녀에게 학업성취를 지나치게 강요하거나 부담을 덜 주게 되었고, 신체적 처벌이나 위협이 감소하고 부모의 기분에 따라 달라지는 훈육방식도 개선되었다. 특히 이러한 변화는 긍정적 양육태도보다, 부정적 양육태도에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상은 행동적 부모훈련이 자녀에 대한 잘못된 양육행동(즉, 학대)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정적 양육태도를 수정하는데 상당히 효과적인 접근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와 일치되게 선행연구에서도 행동적 부모훈련을 실시할 때, 일반적인 부모의 양육태도가 개선될 뿐 아니라 (Babinski, Mills, & Bansal, 2018; Furlong et al., 2013; Ogden & Hagen, 2008), 학대행위부모의 양육행동도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Letarte et al., 2010; Timmer et al., 2005). 더욱이 행동적 부모훈련의 효과로 부모자녀간의 부정적 상호작용이 감소하고 긍정적 상호작용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Lundahi et al., 2006).

셋째, 행동적 부모훈련 프로그램 실시 후, 학대행위부모가 보고한 아동행동 측정도구(ECBI) 점수가 매우 높은 효과크기로 개선되었다. 즉, 본 프로그램 이후 학대피해아동이 보였던 기존의 반항적 행동, 부주의, 품행문제의 발생빈도와 심각도가 매우 높은 효과크기로 감소한 것이다. 임상적 유의도를 추가로 분석했을 때 1명을 제외하고 모든 아동의 문제행동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행동적 부모훈련을 연구한 선행연구도 유사한 결과를 보고한다. 행동적 부모훈련은 부모의 양육행동과 양육태도 뿐만 아니라 아동의 행동문제를 개선하는데 유의미한 효과가 있었다(Babinski et al., 2018; Furlong et al., 2013; Kaminski et al., 2008; McCart, Priester, Davies, & Azen, 2006; Ogden & Hagen, 2008; Timmer et al., 2005; Wagner & McNeil, 2008). 특히 본 프로그램의 모태가 된 부모훈련 중 하나인 Incredible Years(Webster-Stratton, 2011)는 아동의 공격성, 품행문제에 특화된 부모훈련으로서 아동의 문제행동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Barth, 2009). 본 연구를 통해서 국외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학대행위자부모의 양육방식이 개선되고, 학대피해아동의 공격적 문제행동을 경감시키는데 행동적 부모훈련이 효과

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학대를 일으키는 기제 중 하나가 피해아동의 공격성임을 감안할 때(Patterson et al., 1992; Wicks-Nelson & Israel, 2015), 부모 뿐만 아니라 자녀의 행동도 개선될 때 재학대가 예방될 수 있다. 행동적 부모훈련은 부모 양육행동의 실질적인 개선을 매개로 아동의 문제행동을 경감시킬 수 있다. 부모의 양육기술이 좋아짐에 따라 아동의 문제행동의 강도와 발생 빈도가 감소하게 되고, 아동이 문제행동을 덜 일으킴에 따라 부모는 아동을 보다 긍정적으로 대하게 된다(McIntyre, 2008). 부모와 아동간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의 선순환이 이루어지면서 재학대는 자연스럽게 예방될 수 있다. 이러한 변화가 아동에 대한 직접적인 개입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발생한 것이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부모와 아동의 행동변화를 모두 개선하는데 행동적 부모훈련은 비용 효율적인 대안이 될 수 있는 셈이다.

넷째, 본 프로그램을 종결하고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재학대 여부를 추적했을 때 19사례 중 1사례에서 재학대가 발생하여 5.2%의 재학대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장 최근에 발표된 국가행정데이터인 ‘2018 아동학대 주요통계’ 보고서 상의 재학대율 11.4%의 절반 수준이다. 하지만 국가행정데이터의 재학대율은 당해연도 아동학대사례에서 재학대사례를 단순 대비한 결과로 이를 본 연구결과와 비교하기는 어렵다. 본 연구와 유사한 전향적 방식으로, 통상적인 아동보호 사례관리와 서비스를 거친 아동학대 사례에 대해서 재학대율을 측정한 연구들에서 발표된 수치인 5.1%(김세원, 2008), 5.8%(장희선 등, 2016), 6.7%(진재찬 등, 2019)와 단순 비교하였을 때 본 연구에서 추적한 재학대율은 일견 일반적인

인 재학대율과 비슷하거나 조금 감소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보다 면밀하게 재학대율을 발굴하고 추적하는 국외 재학대율인 20%와 비교할 때 본 프로그램을 종결한 아동들의 재학대 위험은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수가 지금의 절반 수준이었던 2004년 데이터를 사용한 김세원(2008)의 재학대율을 논외로 할 때, 본 연구의 재학대율은 장희선 등(2016), 진재찬 등(2019)이 보고한 재학대율보다 0.6%~1.5%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견 1~2%의 재학대율의 차이가 의미 없어 보일 수 있으나 진재찬 등(2019)은 아동학대의 연구맥락을 고려해 볼 때는 1~2%의 재학대율의 차이도 의미를 부여하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상을 종합해 보면 행동적 부모훈련은 국외의 재학대율에 비해서는 큰 폭으로, 국내의 재학대율에 비해서 근소한 폭으로 재학대를 감소시킬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일치되게 최근 Vlahovicova 등(2017)이 시행한 메타분석에서 행동적 부모훈련은 통제집단에 비해 재학대 위험을 약 11% 감소할 수 있다고 결론 내렸다.

행동적 부모훈련이 학대예방에 효과적인 이유는 이것이 학대로 이어지는 강압기제의 작동을 억제하기 때문으로 이해되고 있다(Patterson, 2016; Vlahovicova et al., 2017). 학대행위자는 대부분 양육기술이 미숙하여 아동의 문제행동을 오히려 강화하는 강압과정의 일환으로 학대를 행사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Patterson et al., 1992; Patterson, 2016; Wicks-Nelson & Israel, 2015), 이들 부모들은 행동적 부모훈련을 통해 양육기술을 습득하고 이를 적용함으로써 강압기제의 덫으로부터 빠져 나올 수 있다. 행동적 양육기술은 기존의

체벌중심의 훈육방식보다 더 긍정적이고 안전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훨씬 효과적이기 때문에, 행동적 양육기술을 제대로 사용해본 부모는 학대로 간주될 수 있는 훈육은 더 이상 쓸모없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배우게 된다. 한편, 부모가 효과적인 양육기술로 아동의 문제행동에 적절히 대처하면 아동 입장에서조차 부정적 문제행동이 갖는 이득, 혹은 강화효과가 줄어들게 되는데(McIntyre, 2008; Patterson et al., 1992; Patterson, 2016), 그 결과 아동은 부모의 지시에 보다 잘 순종하게 되고 외현화 문제 수준 또한 낮아진다(Ogden & Hagen, 2008). 이 과정에서 아동의 문제로 인한 부모의 불안과 스트레스가 감소되고(Furlong et al., 2013) 부모-자녀 간 상호작용이 긍정적으로 바뀌며 결국 재학대 위험도 감소하게 된다(Timmer et al., 2005; Chaffin et al., 2004).

이 밖에도 본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뒷받침하는 치료요인을 몇 가지 더 찾아볼 수 있다. 먼저 본 부모훈련이 각 가정에 방문하여 가정의 물리적, 심리적 환경과 직접적으로 접촉하여 각 가정의 필요에 따라 맞춤형으로 진행되었다는 점이다. 효과적인 치료적 개입의 요건 중 하나는 생태학적 타당도이다. 생태학적 타당도란 치료나 연구가 실제 삶의 현장을 반영하는 정도를 의미하는 것이다. 생태학적 타당도가 높은 치료는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맥락 안에서 평가와 개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치료 효과가 내담자의 일상생활에 일반화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Henggeler, Schoenwald, Borduin, Rowland, & Cunningham, 2009). 특히 학대와 같이 사적인 과정에 개입해야 하는 경우, 부모-아동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가정 내로 치료사가 직접 들어갈 때 역기능적 양상을 빠르게 평가하고 정확하게 개입할 수 있다. 학

대행위자들은 흔히 학대를 축소보고하거나 은폐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이들이 외부 상담소나 전문기관에서 상담을 받는 중이라도 재학대가 일어나고 이것이 신속히 확인되지 않아 아동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런 경우를 고려할 때 아동학대 분야 프로그램의 생태학적 타당도를 높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본 부모훈련을 통해서 기술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가장 많이 사용된 것이 모델링과 역할극이었다. 이는 부모훈련시 이론적 강의보다는 토론, 워크숍, 역할극 등 실습 위주의 참여적 방법으로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지적과 일치한다(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3). 본 훈련에서 부모는 가정 내 다양한 갈등 상황에 대해 직접 자녀와 혹은 상담사와 함께 대처방법을 역할극으로 연습하면서 양육 기술을 체득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본 부모훈련이 집단이 아닌 일대일로 집중적인 교육을 실시하였다는 점도 효과성에 기여하였을 수 있다. 본 프로그램에서 상담사는 가정에서 양육기술을 구현하는 대상 부모를 집중적으로 관찰하고 즉각적인 피드백을 각 개인에게 맞춤형으로 제공하였다. 이는 아동학대행위자 프로그램 효과성에 대한 메타분석을 실시한 선행연구에서 집단 치료방식보다는 개인 치료방식이 효과크기가 컸음을 확인한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 또한 본 프로그램에서 상담사들의 중재가 매뉴얼대로 이루어지도록 중재충실도를 체크하게 하여 피드백한 점, 매주 모니터링, 문제해결을 위한 상시적이고 다양한 슈퍼비전을 제공한 것 또한 치료적 요인으로 꼽을 수 있다. 학대가 발생한 가정에는 다양한 위험요인이 존재하였고 학대행위부모마다 상이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

기 때문에 상담사가 예상치 못한 문제가 수시로 발생하였다. 이러한 장애에 빠른 시간 내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상담 시간의 상당 부분이 장애 요인에 대처하는데 허비되기 때문에 프로그램의 매뉴얼에 충실한 중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매 회 제출된 상세일지에 대한 개별 검토와 피드백, 상시 응급전화 사례지도를 시행하였다. 또한 한 달에 한 번씩 총 6회의 사례회의를 실시하였다. 사례회의 슈퍼바이저는 한국심리학회 공인 상담심리사 1급, 한국심리학회 공인 임상심리전문가의 자격증을 취득한 상담교수가 맡았다. 1회의 사례회의는 2시간가량 진행되었으며, 상담사의 질의문답과 함께 프로그램 운영상의 고충에 대한 문제해결 중심 슈퍼비전을 제공하였다.

행동적 부모훈련을 구성하는 회기별 행동적 치료요소는 다양하다. 향후 연구에서는 각 치료요소의 차별적 효과를 검증하는 과정을 통해서 행동적 부모훈련의 작동 메커니즘을 밝히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슈퍼비전에서 나온 상담사들의 보고를 종합해 볼 때, 치료적 효과가 크다고 평가되는 치료요소는 '특별놀이'와 같은 부모자녀관계를 증진하는 요소로 나타났다. 학대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에 대해, 자녀가 부모에 대해서 부정적 인지적 왜곡을 갖고 있어(Kolko & Swenson, 2002), 이것이 관계를 더욱 악화시키고 재학대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 매일 10분씩의 아동주도놀이를 부모에게 과제로 시행하게 하는 특별놀이를 통해서 부모와 자녀의 애착관계가 회복되면서 인지적 왜곡이 자연스럽게 수정되고 아동의 순응성이 증가하였다는 보고가 많이 있었다. 프로그램 초반부에 특별놀이를 반복되는 일과로 안착시키면 이것만으로 자녀의 행동변화가

눈에 띄게 긍정적으로 바뀌어 후반부의 타임아웃과 같은 행동수정 기법을 적용할 필요성이 없어진다는 보고 역시 여러 차례 이루어졌다. 이와 같이 일상에서 반복되는 긍정적 부모아동 상호작용(즉, 특별놀이)은 치료결과에서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회기 중 아동의 직접 참여는 치료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통계분석에서 드러났다. 이는 아동과 부모가 12번의 부모훈련에 함께 참여하는 것보다, 일상생활에서 부모자녀간 상호작용의 실질적 실천과 변화가 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한편, 행동적 부모훈련을 매뉴얼대로 진행하면서 프로그램의 진행을 방해하는 요소로는 부모의 정신건강문제가 많이 거론되었다. 이는 선행 연구에서도 학대가정의 큰 위험요인으로 지목되어 온 요소이다(Kolko & Swenson, 2002). 부모가 임상수준의 우울증, 조현병, 알콜중독과 같은 정신건강문제가 상당할 경우 프로그램에 중도탈락하거나 참여하는 경우에도 참여도를 현저히 감소시킴으로써 치료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요인들은 후속연구에서 중재변인 및 매개변인을 탐색하는 방식으로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을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효과 연구의 최고 표준이라고 할 수 있는 집단간 비교연구설계 대신 단일집단 사전-사후설계를 사용했다. 제한적인 연구설계방식을 사용한 것은 아동보호체계 내에서 연구가 수행되는 현실적인 제약에 기인한다. 참가 부모는 모두 학대판정을 받고 그 후속조치로서 OO광역시 공공서비스로 제공되는 본 프로그램에 참여한 것이었다. 대상 부모를 다른 처치의 통제집단에 배치하고자 하여도 충분한 경험적 근거를 가진 통상적인

부모훈련을 찾아보기 어려웠고, 무처치 대기 집단에 배치하는 것은 행정적, 윤리적 문제가 야기되는 결정이었다. 이러한 한계로 인해 본 연구에서 TAU조건(treatment as usual, 즉, 통상적인 치료조건)이나 무처치 통제집단과 비교하는 집단 간 비교 설계를 사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웠다. 연구 설계가 단일집단 사전-사후설계인 만큼 본 연구의 효과는 단순한 성숙이나 반복 측정, 참가자의 참여 동기와 같이 내적 타당도를 저해하는 가외 변수의 영향을 배제할 수 없다. 향후 국내 연구를 통해 학대행위부모에 대한 근거기반 심리사회적 프로그램이 늘어난다면, 본 행동주의적 부모훈련의 효과와 다른 프로그램을 비교하는 것이 중요하겠겠다.

둘째, 본 연구에서 다양한 중재변인 및 매개변인이 연구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텐데 상대적으로 작은 표본크기로 인해 이러한 효과를 살펴볼 수 없었다. 예외적으로 아동이 행동적 부모훈련에 참여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나누어 분산분석을 실시했을 때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미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는 매우 작은 표본수에 의해 통계적 유의도에 도달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각 변수별로 상호작용 그래프를 그렸을 때 특히 아동의 문제행동 변수에 대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지만 미미한 상호작용 경향성을 관찰할 수 있었다.

중재변수는 그밖에도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다. 가령 프로그램을 끝까지 완수하게끔 이끈 부모의 내적 요인들(예, 정신병리수준, 참여동기)이 그 예이다. 직접적으로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행동적 부모훈련의 중재변인과 매개변인에 대한 선행 연구는 드문 편이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ADHD 아동 대상 행동적 부모훈련의 경우 사회경제적 수준, 아동의 연령, 아동의 공격성, 부모의 정신건강수준 등이 부모훈련의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중재변인으로 알려져 있으며, 부모의 치료 참여도 및 치료자 숙련도 등은 매개변인으로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Pelham & Fabiano, 2008). 향후 이러한 변수가 치료효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보다 큰 표본에 대해서 면밀하게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기초하여 행동적 부모훈련의 효과를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참여자들의 부모훈련 참여를 지속시키는 방안 에 대한 이해가 높아질 수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1년 후 재학대 여부를 추적한 재학대율을 선행연구 상의 재학대율과 단순 비교하였다. 재학대율을 분석할 때 이와 같이 단순히 재학대 비율을 제시하는 것보다 재학대 출현 시기, 재학대 유형 등의 변수를 함께 고려한 생존분석과 같은 통계기법이 바람직하다. 본 연구는 알맞은 분석을 사용하기에 충분한 데이터를 얻는데 행정적, 시간적 한계가 있었으나 차후 연구에서는 보다 많은 표본크기에 기반하여 생존분석을 시도함으로써 재학대 억제효과에 대한 보다 정교한 이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본 연구에서 사용된 행동적 부모훈련 매뉴얼에 대해서 다른 관련 전문가로부터 내용에 대해서 교차타당화 하는 과정이 생략되었던 점도 한계로 들 수 있다. 본 연구는 OO광역시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하면서 시간적 한계로 인해 매뉴얼을 정련하는 작업이 간소화되었으나 추후 후속 연구를 통해서 매뉴얼의 타당도를 높임으로써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높이고 한국의 실정에 맞춰 정교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다섯째, 학대가해부모와 피해아동에 대한 민감한 정보들에 대해 프로그램 대상자, 상담자 등 연구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비밀보장을 지킬 것을 서면으로 서약하였으나, IRB는 따로 실시되지 않았다. 향후 추가적인 연구를 실시할 시에는 IRB를 실시함으로써 생명윤리에 대한 안전성이 높은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광주아동학대예방센터 (2001). 아동학대예방·치료프로그램 연구. 한국복지재단.
- 구희정 (2016). 영유아기 자녀를 둔 군인가정 어머니를 위한 사이버 부모훈련 프로그램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양육태도 및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열린부모훈련 연구, 8(2), 21-36.
- 굿네이버스 (2017). 굿네이버스 아동보호 통합지원 전문서비스 모형 개발 연구보고서 Vol. 3.
- 권현지 (2011).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아동의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울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광혁 (2009). 아동학대 및 방임이 아동발달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학논총, 24(2), 27-46.
- 김미숙 (2005).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와 양육 효능감이 양육 행동에 미치는 영향: 유아기와 학령기 자녀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세원 (2008). 아동학대 재발생의 영향 요인.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수정, 정익중 (2013). 아동학대가 우울, 불안과 공격성에 미치는 지속 효과와 최신 효과에 대한 종단 연구. 한국아동복지학,

- (43), 1-28.
- 김영숙, 조은영 (1996). 어머니의 양육 태도, 양육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와 아동 사회적 유능성과의 관계 연구. *인간발달연구*, (3), 15-24.
- 김유경 (2008). 아동학대 실태와 정책방안. *보건복지포럼*, 143, 30-43.
- 김윤정 (2010). 아동학대 행위자 집단 치료프로그램 효과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윤희, 박영순, 소명희, 정신혜, 조고은 (2018). 부산광역시 가족기능강화사업 프로그램 매뉴얼. 부산광역시 아동보호종합센터. 미간행.
- 김은희, 이인혜 (2016). 아동 청소년기 외상경험과 경계선 성격 특성의 관계: 대상적자기 손상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8(4), 1003-1022.
- 김평화, 윤혜미 (2013). 아동학대가 아동의 정서결핍과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아동복지학*, (41), 217-240.
- 남혜순 (2003). 어머니가 지각하는 유아의 기질에 따른 양육 스트레스의 차이.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두정일 (2010). 파괴적 행동문제가 있는 아동과 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한 집단 부모-아동 상호작용 치료 프로그램 효과 검증.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문성주, 김성길 (2013). 부모훈련 프로그램이 부모효능감과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미래교육연구*, 3(3), 1-16.
- 박애리 (2014). 부모간의 폭력노출 및 학대받은 경험이 아동의 공격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21(10), 503-528.
- 박응임 (1995). 영아-어머니간 애착 유형과 그 관련 변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현선, 배진희, 안동현, 한지숙 (2004). 아동학대 가해부모를 위한 치료프로그램 개발. *아동권리연구*, 8(4), 649-670.
- 박현정, 김현경 (2017). 부모를 위한 아동학대 예방 가정방문 프로그램 효과 메타분석. *아동간호연구*, 23(4), 479-493.
- 배화옥, 강지영 (2015). 아동방임 재발유형과 관련요인. *보건사회연구*, 35(1), 455-474.
- 변은실, 이주영 (2016). 정서적 학대가 아동의 외현적 및 관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8(4), 1125-1149.
- 보건복지가족부 (2009). *아동학대행위자특성별 치료프로그램 개발*.
-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4). *재학대 방지를 위한 가족기능강화사업 최종 보고서*.
-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7). *2016 전국 아동학대 현황보고서*.
-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9). *2018 아동학대 주요통계*.
- 서혜영 (1992). 장애아 어머니의 적응과 사회적 지원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숙재 (1997).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사회적 지원과 부모 효능감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신혜영, 최해림 (2003). 부모로부터의 학대경험과 공격성 및 대인불안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5(2), 295-307.
- 안동현, 박현선, 김완진, 한지숙 (2003a). *아동학대행위자 치료프로그램 개발*. 보건복지부.
- 안동현, 장화정, 이영애, 홍강의, 이재연, 이양

- 희, 조홍식, 곽영 (2003b). 신고된 사례의 아동학대 실태와 후유증 연구. *아동과 권리*, 7(1), 1-20.
- 오승환 (2001). 아동 학대와 아동의 생태학적 환경과의 관계. *아동권리연구*, 5(2), 47-60.
- 윤희근 (2012). 유아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스트레스 대처방식 및 양육태도 관계 연구. 한국국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승주, 남재성. (2016). 아동학대 경험에 따른 자존감 저하가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범죄심리연구*, 12(3), 1-26.
- 이애진 (2016). 중재반응모델 적용에 따른 철자 학습장애 아동의 파닉스 중재 효과 분석. 국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재연, 윤선화 (2004).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부모훈련 탐색. *아동권리연구*, 8(2), 237-252.
- 이정윤, 장미경 (2009). 어머니의 우울과 양육 행동의 관계: 자녀양육관련 비합리적 사고의 매개효과. *인지행동치료*, 9(2), 1-16.
- 이주희, 이양희 (2000). 아동 및 부모특성이 아동학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아동과 권리*, 4(2), 113-123.
- 이충권, 양혜린 (2017). 가정에서의 학대·방임 피해경험이 아동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부모애착, 교사애착, 또래애착의 다중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19(1), 29-55.
- 임진섭 (2009). 청소년비행과 공격성의 관계에 대한 연구. *사회복지연구*, 40(4), 101-126.
- 임호찬 (2008). 부모양육태도검사. 서울: Mindpress
- 장화정, 강미경, 신소현 (2000). 가정 내 위기 요인과 아동학대의 관계. *아동권리연구*, 4(2), 125-138.
- 장희선, 김기현, 김경희 (2016). 아동보호서비스 개입사례의 재학대 특성 연구: 생존분석의 적용. *한국가족복지학*, 54, 225-262.
- 장희순 (2015). 아동기 신체적 학대 경험과 반응적 공격성의 관계에서 외상 후 증상의 매개효과. *아동과 권리*, 19(2), 163-185.
- 정희승, 유은영, 정민예, 박지혁, 이택영, 이지연 (2015). 자폐스펙트럼장애 아동을 위한 감각통합 대처기술 부모훈련이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대한작업치료학회지*, 23(3), 111-126.
- 주지현 (2002). 여성의 아동학대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가정내 주양육자인 어머니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진재찬, 이순기, 정혜린, 선우진희, 유서구 (2019). [주제발표 3] 분리된 학대피해아동의 원가정 재결합 후 재학대 위험 - 재결합을 돕는 평가도구와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대한 탐색 -. *한국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 112-115.
- 차재경 (2013). 세 가지 차원에 따른 긍정적 행동지원이 통합학급 학생들의 수업 참여행동과 방해행동에 미치는 영향. 순천향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최경화, 홍상욱 (2016). 감정코칭 부모훈련프로그램이 발달장애아동 어머니의 심리적 안녕감과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효과. *코칭연구*, 9(3), 53-76.
- 충청북도 아동보호전문기관 (2015). 아동학대 행위자 및 보호자 치료 프로그램: 내 삶의 멋진 드라이빙.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3).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부모훈련 제도화 및 활성화 방안 연구.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 아동학대 행위자 치료프로그램 개발.
- 허묘연 (2004).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 양육행동 척도의 개발 및 타당화 연구. *청소년상담연구*, 12(2), 170-189.
- 홍전희 (2003). 아동학대의 실태와 대처방안. 명지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Abidin, R. R. (1990). Parenting stress index(PSI). Charlottesville: Pediatric Psychology Press.
- Babinski, D. E., Mills, S. L., & Bansal, P. S. (2018). The effects of behavioral parent training with djunctive social skills training for a preadolescent girl with ADHD and borderline personality features. *Clinical Case Studies*, 17(1), 21-37.
- Barkley, R. A. (1997). *Defiant Children* (2nd ed): A clinician's manual for assessment and parent training. New York: The Guilford Press.
- Barkley, R. A. (2013). *Defiant Children* (3rd ed): A clinician's manual for assessment and parent training. New York: The Guilford Press.
- Barlow, J., Johnston, I., Kendrick, D., Polnay, L., & Stewart-Brown, S. (2006). Individual and group-based parenting programmes for the treatment of physical child abuse and neglect. *Cochrane Database of Systematic Reviews*. doi:10.1002/14651858.CD005463.pub2.
- Barth, R. P. (2009). Preventing child abuse and neglect with parent training: Evidence and Opportunities. *Future of Children*, 19(2), 95-118.
- Brinkmeyer, M. Y., & Eyberg, S. M. (2003). Parent-child interaction therapy for oppositional children. In A. E. Kazdin & J. R. Weisz (Eds.), *Evidence-based psychotherapies for children and adolescents* (pp. 204-223). New York, NY: Guilford Press.
- Chaffin, M., Hecht, D., Bard, D., Silovsky, J. F., & Beasley, W. H. (2012). A statewide trial of the SafeCare home-based services model with parents in child protective services. *Pediatrics*, 129(3), 509-515.
- Chaffin, M., Silovsky, J. F., Funderburk, B., Valle, L. A., Brestan, E. V., Balachova, T., Jackson, S., Lensgraf, J., & Bonner, B. L. (2004). Parent-Child Interaction Therapy with physically abusive parents: Efficacy for Reducing Future Abuse Reports. *Journal of Consulting & Clinical Psychology*, 72(3), 500-510.
- Chen, M., & Chan, K. L. (2015). Effects of parenting programs on child maltreatment prevention: A meta-analysis. *Trauma, Violence, & Abuse*, 17(1), 88-104.
- Cohen, J. (1988). *Statistical power analysis for the behavioral sciences*(2nd ed). UK: Routledge. ISBN 978-1-134-74270-7.
- Crouch, J. L., & Behl, L. E. (2001). Relationships among parental beliefs in corporal punishment, reported stress, and physical child abuse potential. *Child Abuse and Neglect*, 25(3), 413-419.
- Crinic, K. A., & Acevedo, M. (1995). Everyday stresses and parenting. In M. H. Bornstein (Ed.), *Handbook of Parenting, Vol. 4*, (pp. 277-297). New Jersey: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Feldman, M. A., & Werner, S. E. (2002). Collateral effects of behavioral parent training on families of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and behavior disorders. *Behavioral*

- Interventions*, 17(2), 75-83.
- Furlong, M., McGiloway, S., Bywater, T., Hutchings, J., Smith, S. M., & Donnelly, M. (2013). Cochrane Review: Behavioural and cognitive-behavioural group-based parenting programmes for early-onset conduct problems in children aged 3 to 12 years (Review). *Evidence-Based Child Health*, 8(2), 318-692.
- Hurlburt, M. S., Nguyen, K., Reid, J., Webster-Stratton, C., & Zhang, J. (2013). Efficacy of the Incredible Years group parent program with families in Head Start who self-reported a history of child maltreatment. *Child Abuse & Neglect*, 37(8), 531-543.
- Kaminski, J. W., Valle, L. A., Filene, J. H., & Boyle, C. L. (2008). A meta-analytic review of components associated with parent training program effectivenes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36(4), 567-589.
- Kolko, D. J., & Swenson, C. C. (2002) Assessing and treating physically abused children and their families: a cognitive-behavioral approach. California: Sage Publications.
- Henggeler, S. W., Schoenwald S. K., Borduin, C. M., Rowland, M. D., & Cunningham, P. B. (2009). Multisystemic therapy for antisocial behavior in children and adolescents(2nd ed). New York: The Guilford Press.
- Letarte, M. J., Normandeau, S., & Allard, J. (2010). Effectiveness of a parent training program "Incredible Years" in a child protection service. *Child Abuse & Neglect*, 34(4), 253-261.
- Lundahi, B. W., Nimer, J., & Parsons, B. (2006). Preventing child abuse: A meta-analysis of parent training programs. *Research on Social Work Practice*, 16(3), 251-262.
- McCart, M. R., Priester, P. E., Davies, W. H., & Azen, R. (2006). Differential effectiveness of behavioral parent-training and cognitive-behavioral therapy for antisocial youth: A Meta-Analysi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34(4), 525-541.
- McIntyre, L. L. (2008). Parent training for young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Randomized controlled trial. *American Journal on Mental Retardation*, 113(5), 356-368.
- McMahon, R. J., & Estes, A. M. (1997). Conduct problems. In E. J. Mash & L. G. Terdal (Ed.), *Assessment of childhood disorder* (pp. 130-193). New York: Guilford Press.
- McNeil, C. B., & Hembree-Kigin, T. L. (2013). 부모-아동 상호작용치료. (이유니 역) 서울: 학지사. (원서 2010년 발행)
- Ogden, T., & Amlund Hagen, K. (2008). Treatment effectiveness of parent management training in Norway: A randomized controlled trial of children with conduct problems. *Journal of Consulting & Clinical Psychology*, 76(4), 607-621.
- Patterson, R. P. (2016). Coercion theory: The study of change. In T. J. Dishion & J. Snyder (Eds.), *The Oxford handbook of coercive relationship dynamics*. (pp. 7-22).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Patterson, G. R., Reid, J. B., & Dishion, T. J. (1992). *Antisocial boys*. Eugene, OR: Castalia.
- Pelham Jr, W. E., & Fabiano, G. A. (2008). Evidence-based psychosocial treatments for Attention-Deficit/Hyperactivity Disorder. *Journal*

- of *Clinical Child & Adolescent Psychology*, 37(1), 184-214.
- Peterson, L. S. (2008). "Clinical" Significance: "Clinical" Significance and "Practical" Significance are not the same things. *The Southwest Educational Research Association*.  
<https://eric.ed.gov/?id=ED499990>.
- Prinz, R. J., Sanders, M. R., Shapiro, C. J., Whitaker, D. J., & Lutzker, J. R. (2009). Population-based prevention of child maltreatment: The U.S. Triple P system population trial. *Prevention Science* 10(1), 1-12. doi:10.1007/s11121-009-0123-3.
- Rowland, D. L., Zabin, L. S., & Emerson, M. R. (2000). Household risk and child sexual abuse in a low income, urban sample of women. *Adolescent and Family Health*, 1, 29-39.
- Santini, P. M., & Williams, L. (2016). Parenting programs to prevent corporal punishment: A systematic review. *Paidéia (Ribeirão Preto)*, 26(63), 121-129.
- Sawilowsky, S. (2009). New effect size rules of thumb. *Journal of Modern Applied Statistical Methods*, 8(2), 467-474.
- Suchman, N. E., & Luther, S. S. (2001). The mediating role of parenting stress in methadone-maintained mothers' parenting. *Parenting: Science and Practice*, 1, 285-315.
- Swenson, C. C., Schaeffer, C. M., Henggeler, S. W., Faldowski, R., & Mayhew, A. M. (2010). Multisystemic therapy for child abuse and neglect: A randomized effectiveness trial.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24(4), 497-507.
- Tan, S., & Rey, J. (2005). Depression in the young, parental depression and parenting stress. *Child Psychiatry*, 13(1), 76-79.
- Timmer, S. G., Urquiza, A. J., Zebell, N. M., & McGrath, J. M. (2005). Parent-Child Interaction Therapy: Application to maltreating parent-child dyads. *Child Abuse & Neglect*, 29(7), 825-842.
- Vlahovicova, K., Melendez-Torres, G. J., Leijten, P., Knerr, W., & Gardner, F. (2017). Parenting programs for the prevention of child physical abuse recurrence: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Clinical Child and Family Psychology Review*, 20(3), 351-365.
- Wagner, S. M., & McNeil, C. B. (2008). Parent-Child Interaction Therapy for ADHD: A conceptual overview and critical literature review. *Child & Family Behavior Therapy*, 30(3), 231-256.
- Webster-Stratton, C. (2011). *The Incredible Years® Parents, Teachers and Children's Training Series*. Seattle: Incredible Years Inc.
- Weisz, J. R. (2004). *Psychotherapy for Children and Adolescents: Evidence-Based Treatments and Case Examples*.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White, O. G., Hindley, N., & Jones, D. P. (2015). Risk factors for child maltreatment recurrence: An updated systematic review. *Medicine, Science and the Law*, 55(4), 259-277.
- Wicks-Nelson R. & Israel A. C. (2015). *아동·청소년 이상심리학* (정명숙, 박영신, 정현희 역). 서울: 학지사. (원전은 2014에 출판)

원고접수일 : 2020. 12. 08  
수정원고접수일 : 2021. 02. 04  
게재결정일 : 2021. 04. 29

## **The Effectiveness of Behavioral Parent Training in Preventing Child Abuse: One Year Follow-up**

**Go eun Jo**

Dongju College Student counseling center  
Counselor

**Yun hee Kim**

Silla University Department of Education  
Associate Professor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verify the effect of a behavioral parent training program for child abusers on re-abuse rates, parenting stress, parenting attitudes, and destructive behavior in children. The subjects were 19 pairs of parents who had been accused of child abuse and neglect. The intervention was the behavioral parent training program developed by Kim et al., 2018. Before and after parent training, the Parenting Stress Index, Parenting Attitude Test, and Eyberg Child Behavior Inventory were administered. Assessment results and re-abuse rates of participants were collected at one year after completion of the program. A large effect size was found for decreases in parenting stress and increases in positive parenting attitudes. A very large effect size was found for decreases in negative parenting attitudes and children's destructive behavior. Re-abuse rates (5.2%) were 50% lower than national re-abuse rates during the same year.

*Key words* : child abusers, behavioral parent training program, parenting stress, parenting attitudes, destructive behavior